

데스크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두 달 전, 취재차 방문한 ‘책방 십다’의 유리창에 적힌 문구에 시선이 쏠렸다. 순천역 부근 재래시장 골목에 자리한 책방은 낡은 국밥집을 ‘손질’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산뜻했다. 노란색 간판에 하늘색으로 마감한 창틀이 책방이라기보다는 ‘물 좋은’ 카페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지인의 서재에 와 있는 듯했다. 책방은 밖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작고 아담했다. 대략 15평 정도 될까? 책장에는 여행, 인문학, 동화, 철학, 시집, 에세이, 소설 등 독립 출판물이 가득했다. 서가에 꽂혀 있는 책보다 정면에서 표지를 볼 수 있게 진열해 놓은 책이 더 많았다. 갤러리 벽면에 내걸린 그림들을 보는 것 같아 흐뭇했다.

이곳 책방의 ‘얼굴’은 책의 표지가 보이지 않게 포장한 책들(‘Blind Date with a Book’)이다. ‘책방지기’인 홍승용(39)·김주은(35) 부부가 꼭 소개하고 싶은 책들

책방의 반란이 시작됐다

을 골라 포장한 뒤 그 위에 책의 내용을 추측하게 하는 해시 태그(#)를 붙여 놓았다. 책 광고와 표지만을 보고 구입하기보다는 진짜 좋은 책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책도 보고 음식도 먹고

뭘니 뭘니 해도 이 책방의 매력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저자 초청 강연, 우쿨렐레 교실, 독서 모임 등을 개최해 순천 시민들의 감성을 씻어 준다. 문을 연 지 2년도 채 안 됐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광주 동명동에 문을 연 ‘지음책방’은 요즘 뜨고 있는 ‘책맥’ 책방이다. 서점은 조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책과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꾸민 ‘핫한’ 공간이다. 그래서 ‘지음책방’은 일반 책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타자 대신 식탁이 비치돼 있는 게 그 예다. 컵, 식탁 위에는 아름다운 문양의 접시와 집, 나이프와 포크들이 놓여 있어 책방인지 레스토랑인지 헷갈린다. 방문객들은 서점에 진열된 책들을 꺼내 보면서 맥주와 스타이크, 샐러드나 파스타를 즐기는 색다른 경험에 빠진다.

바야흐로 동네책방의 ‘반란’이 시작됐다. 서점이 사라져 가는 시대, 근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콘텐츠로 무장한 동네

책방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 온라인 서점 등장으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향토 서점 대신 독특한 콘셉트를 내건 개미 책방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비단 광주만의 현상이 아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1625곳이던 서점은 2015년 1559곳으로 줄었지만 특색 있는 동네 책방은 오히려 늘었다. 올해엔 서울 60여 곳을 포함해 전국에 150여 곳이 생겼다. 광주만 해도 ‘숨’, ‘잠은 책방 흰 책방’, ‘심가네박씨’ ‘소년의 서’ ‘책과 생활’ 등 10여 곳에 이른다.

이들 책방은 여행, 시, 소설, 지역 등 일정한 범주의 책을 판매하고 영화 상영,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등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학습물과 베스트셀러 위주인 대형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선 보기 힘든 풍경이다.

마실 가자 동네 서점으로

동네 서점의 성공에는 책방지기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공간이 협소해 많은 책을 다 들여놓을 수 없다 보니 주인장의 ‘안목’으로 선택받은 책들만 독자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서점에선 책방지기의 추천 리스트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동네 책방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상당수의 책방은 경영난에 시달리다 1~2년 만에 문을 닫기도 한다.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일 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그나마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과 배송에서 인터넷 서점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동네서점은 등장 그 자체만으로도 반갑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친구와 재회한 느낌이랄까. 사실 70~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이라면 서점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아날로그 세대들에게 서점은 단순히 책을 구입하는 곳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고 정을 나누는 문화사랑방이었다.

동네 서점은 삭막한 도시에 온기를 불어넣는 싹틔울 같은 존재다. 이런 공간들이 늘어나는 건 동네가 건강해지고 나아가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청신호다. 때마침 지자체에서도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지역사회가 동네 서점에서 책을 공동 구매하거나 컨설팅과 문화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등 꽤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면 동네 서점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 그래서 말인데, 올 가을엔 조금 낯설거나 불편하더라도 책의 향기가 가득한 책방과 친해지도록 하자. 오늘 저녁, 문화전당 인근의 동네 책방에 들러 햇볕해진 마음을 채워줄 책 한 권 사 들고 들어가야겠다.

/jhpark@kwangju.co.kr

기고

‘광주교육’이 ‘미래교육’입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지난 겨울 토요일마다 금남로에서 촛불을 들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광주 시민들과의 촛불을 통한 연대는 추위를 잊게 했다. 금남로에서 수많은 학생을 만났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가 살고 싶은 나라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촛불은 수직의 갑을 관계가 수평적 권력구조로 재편되는 혁명이었다. 그 변혁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서 있었다.

아이들의 생각은 어리지 않다. 아이들의 꿈은 어른들의 꿈과 다르지 않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도 어른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

의 진화를 거듭하고,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는 교육은 제자리 걸음만 했다. 촛불은 세상에 쌓이고 쌓인 적폐를 깨는 우리 시대의 도구였고, 촛불의 거리에서 나는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새삼 다시 확인했다.

단순 교과지식을 암기해 획일적인 평가로 무한 경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며, 가진 지식을 폭넓게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도입한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뒤엎는 기술혁명이며, 그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고 단언했다.

통섭의 시대다. 여러 학문과 지식들이 서로 융합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미래를 살아야 하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맞는 미래교육이 지금 필요하다. 작은 오차도 인정하지 않는 기계의 정밀함을 인간이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창조적인 생각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고,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한 인간의 능력도 창의성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실은 어떠한가? 아이들은 교사 중심의 강의 수업, 교과 중심의 방과 후 수업, 반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획일적인 평가에 길들여져 개개인의 다양성을 잃었으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같이 생각하면 느끼게 되고, 느낌을 얻으면 보이는 것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완전 선택제를 도입했다. 교육과정도 학생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해 협력 학습, 프로젝트 학습, 교과 간 융합 학습 등 학생 참여와 활동이 활발한 배움 중심 수업으로 전환했다.

특히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예술, 체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 교육과정에 편성해 나가고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토론수업의 비중도 높이고, 학생 활동과 배움이 중심이 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실 수업의 질적 변화를 도모했다.

사실 사회적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다. 무엇보다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완전 선택제 소식을 접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성적을 걱정했다. 밤늦게까지 강제로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놓는다고 생각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모든 수업을 기우에 그치게 만들었다.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완전 선택제는 현장에 잘 안착해 아이들의 꿈의 깊이 키우는 시간이 되고 있다.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제 개혁’을 통해 미래교육의 틀을 세우려 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키워 스스로 자기 진로를 설계하고, 희망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교육이다. 아이들의 꿈보다 더 큰 가치는 세상에 없다.

은편칼럼

종교인 과세 미루지 말아야 한다



임명재
약사

아주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촛불을 들었던 심정으로 지켜보고 응원하면 우리의 국력과 국가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인 부분만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경제, 교육 등 각 부분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속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종교인의 과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도시부터 작은 시골마을에 이르기까지 각종 종교 시설이 지리 잡고 있다. 언론과 통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에 전국 편의점 수가 2만5000여 개인 것에 비해 교회 의 숫자는 무려 7만8000여 곳에 이르고 한해에 거둬들이는 헌금의 추정치가 1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의 박근혜 정부의 실패의 원인은 아무도 견제하지 못한다는 절대 권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종교시설이 치외법권화 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일부 집행부 관련 사람들만 그 살림을 알 수 있을 뿐 그 어느 누구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종교가 기업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우려하고 있다. 첨탑의 표식만 없다면 마치 거대한 체육관 같은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종교의 참 모습인 것은 아닐 것임에도 경쟁처럼 이뤄진다. 종교시설을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고 의료시설, 복지시설, 언론을 소유하기도 하고 이를 상속하기까지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데 관심이 많은 듯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일부 종교인들은 권력에 편승하여 그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이며 도저히 종교인의 발언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설교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17년도 복지예산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약 12조 원이었는데 교회의 추정 헌금액 규모만 17조 원에 이르고 다른 종교단체까지 합한다면 도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른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좋게 쓰시길 바라면서, 또는 사후에 좋은 것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드리는 헌금과 시주금 등을 교역의 연봉을 지

급하고 거대한 종교시설을 건축하고 각종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종교에 대해 또 다시 과세를 유예하자는 등의 주장은 일부 종교인의 욕심일 뿐이고 동시에 사회의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또 다른 적폐일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

우리의 헌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국교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 특혜를 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동안 누려온 특혜를 고려한다면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아무리 종교인들이 다른 직업과의 차별성과 선명함을 주장해도 종교인은 수많은 직업중의 하나일 뿐이고 사업자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영세한 사업자와 소득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체도가 구축되어 있다. 종교인들도 이와 같은 체계를 도입해 영세한 종교인들에겐 기존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공평한 과세는 물론이고 투명한 회계제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감시와 검제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종교인의 과세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社說

4·19혁명 발원지 광주와 금남로 4·19공원

옛 한국은행 터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금남로공원 한편에는 ‘4·19혁명 진원지’라고 적힌 석판이 설치돼 있다. 지난 2011년 1월 서울 4·19공로자와 전국 4·19 주역들이 4·19혁명의 최초 발원지가 광주임을 알리기 위해 설치한 표지석이다.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위해 국민주권을 박탈한 3·15 부정선거 당시 항쟁의 첫 불화를 올린 곳이 광주 금남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960년 3월 15일 낮 12시 45분께 민주당원과 시민 1000여 명이 궤거한 ‘곡(哭) 민주주의 장승(葬送) 데모’가 그것이다. 이보다 3시간쯤 지난 오후 3시 40분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난다. 여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사망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4월 10일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전국에서 4·19혁명의 불꽃이 타올랐다.

금남로에서는 4월 19일 당일 학생들의 행진에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 지역 사망자 8명 중 7명이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사망했고 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는 4·19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히 광주시 동구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금남로공원’의 지명을 ‘금남로4·19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 지역 16개 주요 시민사회단체에 의견을 물은 결과 12개 단체가 찬성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광주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해 왔다.

광주 4·19혁명을 기리는 것은 광주 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주도한 ‘의향 광주’의 도도한 역사를 전국에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금남로 4·19공원 명칭 채택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영업 붕괴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매출이 없어 혼자 일하는가 하면, 가게를 내놓아도 인수자가 없어 권리금까지 포기한 채 문을 닫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나 급등한 7300원으로 예정돼 있어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한층 깊어가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는 45만 5000여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7000명이나 줄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년 새 9만 1000여명에서 8만 3000여명으로 8000명이나 감소했으며, 직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도 1000여명이 증가한 37만 2000여명에 달했다.

실제로 보면 자영업계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2926명이 창업하고, 2024 명이 폐업해 자영업에 뛰어들어 사람 중 3분의 1 정도만 살아남는 전쟁터인 셈이다. 경기 불황과 자영업자들의 영세

성 탓에 빛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까지 해지하는 이들이 매년 60% 가량 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유사시 공제금을 받아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광주 지역 자영업체는 전 사업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바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인전을 제외하곤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다. 자영업의 몰락이 광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자영업의 업종별 특성 분석에 따른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각 분야 자영업 현황 분석 및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 자영업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야 한다. 생계를 위해 뛰어들어 자영업자들에게만 시장을 맡길 수는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無等鼓

커피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루왁 커피는 인도네시아에서 탄생했다. 루왁(Luwak)은 인도네시아어로 사향고양이를 말하는데 현지에선 사향고양이의 배설물로 만든 커피를 ‘코피 루왁’이라고 한다.

커피하는 암모니아의 알싸한 맛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너무 식혀 입천장 허물이 벗겨지는 흥어를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냉장 시설이 없는 시절, 흑산도에서 잡은 흥어를 영선강을 통해 육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효돼 삭은 흥어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흑산도에선 갓 잡은 흥어를 먹었는데 선홍빛 혀는 잘리고 흐물흐물한 반면 코와 내장(예)으로 끓인 예국은 부드러운 맛이다.

커피와 흥어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에서 오리지널 루왁 커피를 맛보았다. 국내나 베트남 또는 라오스 등지에서 마셔 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루왁 커피를 마시면서 갓 잡은 흥어의 부드러운 맛이 떠올랐다.

맛은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값을 떠나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맛이라면 그것이 그 음식의 진짜 맛이 아닐까. 쓴맛이 강한 아메리카노에 익숙한 우리에게 커피란, 값싼 루왁이 아니라 길가에서 흔히 테이크아웃하는 커피일 것이다.

이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에서 오리지널 루왁 커피를 맛보았다. 국내나 베트남 또는 라오스 등지에서 마셔 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루왁 커피를 마시면서 갓 잡은 흥어의 부드러운 맛이 떠올랐다.

맛은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값을 떠나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맛이라면 그것이 그 음식의 진짜 맛이 아닐까. 쓴맛이 강한 아메리카노에 익숙한 우리에게 커피란, 값싼 루왁이 아니라 길가에서 흔히 테이크아웃하는 커피일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551)
정기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 부 220-0642	체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